

보도자료: 세상만들기 전시

누스페어동시대미술연구소/강효연

e-mail: noosphere.info@gmail.com

tel: 010-8640-5279

경북대학교미술관 /이남미

e-mail: knuartmuse@hanmail.net

tel:053-950-7968

팡데옹-소르본 파리1대학교와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가 함께 기획한
<공동사업명: 세상 만들기(Faire des Mondes)>

그 두 번째 전시

세상만들기(Faire des Mondes)

2016년11월17일(목) ~ 12월20일(화)

개막식 2016년 11월 17일(목) 5pm

경북대학교미술관

< 참여작가 >

베르티으 박. 에리카 헤다이야. 로맹 베르니니. 레미 야단

< 전시기획 >

전시감독: 프랑수아즈 독끼에르, 마리안 데리안

협력기획: 강효연(누스페어동시대미술연구소장)

이남미(경북대학교미술관 큐레이터)

박지향(우양미술관 큐레이터)

■ 전시개요 및 참여작가

전시일정 2016년 11월 17일(목) ~ 12월 20일(화)

개막식 2016년 11월 17일(목) 5pm

장소 경북대학교미술관

참여작가 베르티외 박, 에리카 헤다이야, 로맹 베르니니, 레미 야단

전시기획 프랑수아즈 독끼에르, 마리안 데리안 / 협력기획 강효연, 이남미, 박지향

주최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

주관 경북대학교미술관, 우양미술관

** 이 전시는 경북대학교에서 전시를 마치고, 작품들이 약간 추가, 변경된 모습으로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순회전으로 연결되어 펼쳐집니다.

전시일정 2016년 12월 23일(금) ~ 2017년 4월 16일(일)

장소 우양미술관

- 기획의도

한국과 프랑스 양국간 교류의 역동적인 발판과 지속성을 마련하기 위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공식프로그램으로 지정 받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현 미술계의 동향과 변화상을 체감함으로써 서로의 가치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코자 교류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에 프랑스, 팡데옹-소르본 파리 1 대학교와 한국의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가 공동 협력하여 2016년 2월, 국립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에서 프랑스에서는 한국 작가 4인(임현락, 김영섭, 박윤영, 이은실)의 작품을 소개하고, 2016년 11월 17일, 한국에서는 프랑스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현대미술전시 <세상만들기>전을 개최하고자 한다.

- 전시 간략한 내용

<Faire des Mondes>전은 "인간과 동물"이란 내용을 중심으로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시대적 담론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이다. 기원전부터 동물은 거의 모든 문명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어왔다. 인간과 동물들의 관계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아주 다양한 도상들을 생산해 왔고, 오늘날에도 많은 작가들이 인간과 동물과의 가족적인 관계 이상으로 매혹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상징적 의미를 그들만의 방법으로 제시해오고 있다. 이 전시에 초대된 4명의 프랑스 작가들은 이 주제가 그들 자신에게 내재한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고, 옛 신화에 접근하려는 작가들의 시도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 이렇듯 작품들은 아주 흥미로운 감상의 대상으로, 최근 프랑스의 동시대미술이자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업 성향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시내용

2016 년 2 월 파리, 국립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에서 개최한 한국작가들로 구성된 <Made in Korea>전에 이어, 11 월 17 일 대구 경북대학교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세상만들기 Faire des Mondes>전은 프랑스의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프랑스와 한국' 양국의 해에 마련된 이번 교류전은 양국의 미술전시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어줄 것이다.

<세상만들기>전은 동물이란 주제로 출발한다. 기원전부터 동물은 거의 모든 문명과 예술 안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왔다. 인간과 동물들의 관계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아주 다양한 도상들을 생산해 왔고, 오늘날에도 많은 작가들이 인간과 동물과의 가족적인 관계 이상으로 매혹적이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상징적인 힘을 그들만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전시에 초대된 4 명의 프랑스 작가들은 이 주제가 그들 자신에게 내재한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고, 옛 신화에 접근하려는 작가들의 시도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 이렇듯 작품들은 아주 흥미로운 감상의 대상으로, 최근 프랑스의 동시대미술이자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업 성향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들은 드로잉, 필름, 유화,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는 조형 작업을 선보이면서 최근 프랑스 동시대미술, 현재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업 성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참여작가

베르티 박 (Bertille Bak) 1983년 출생, 프레스노이(Fresnoy) 스튜디오 국립 동시대미술학교 졸업, 파리 거주 및 활동 중.

베르티 박의 작업은 평소 그녀가 지역 공동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찰한 제례 의식, 행동들, 오브제들을 작업의 소재로써 작품에 함축시킨다. 또한 사회조건들에 대한 우려와 민속학자의 연구들처럼 그녀가 만난 주민들의 증언들과 흔적들을 수집하고 기록한다. 이때에 참고자료가 되는 특징 혹은 바로 정면에 제시되는 어떤 주장들을 가지고 작품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때론, 익살스러운 유머와 우울한 조롱이 섞혀 그 의미를 더 한다.

로맹 베르니니 (Romain Bernini) 1979년 출생, 파리 거주 및 활동 중.

로맹 베르니니에게 동물들은 종종 인간의 가면으로 사용된다. 주로 큰 화폭의 유화작품들은 자신의 법에 따라 기능하는 욕망의 세상으로서 그 일부분을 보여준다. 이 작품들이 만약 어떤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마스크를 쓰고, 숲에서, 자연에서 동물의 외형과 섞혀있는 인간의 출현으로 역시 가상의 이미지로 재현한다.

엘리카 헤다야 (Elika Hedayat) 1979년 테헤란에서 출생. 파리국립미술학교 졸업

테헤란 출생으로, 프랑스와 이란을 오가며 작업 하는 엘리카는 그녀의 나라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참여와 비평적 시선을 가진다. 위태로운 그녀의 정체성은 그녀를 불평등과 검열에 대한 싸움으로 이끈다. 또한 권력과 힘 앞에선 인간들의 탐욕을 조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작가는 지구의 폭력 앞에서 아이의 순진한 균형감을 만날 수 있는 세계를 작품으로 만들어간다. 바로, 반은 동물이고 반은 인간의 모습을 한 그로테스크하고 아이러니하게 나타나는데 그녀의 이야기들은 지금의 시대와 현실에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는 비디오, 설치, 사운드, 덧생, 퍼포먼스 등 다양한 소재들로 대상을 탐구해 나간다.

레미 야단 (Rémy Yadan) 1976년 출생, 파리 거주 및 활동. 파리-세르주 국립미술학교 졸업.

비디오 아티스트이면서 연출가이기도 한 레미 야단은 역사적, 집단적 그리고 개인적인 토피바퀴와도 같은 기억의 운영체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채취될 사실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그의 최근 비디오 작품들 중 하나인 *피에서 심장으로(Du sang au coeur)*에서 한 농부 부부의 사적인 공간, 즉 토끼의 죽음과 해체가 이루어지고, 잘리어 교환의 대상이 되는 곳을 촬영한다. 몇 백년된 전통적인 프랑스 시골에서, 법률과 인간들의 감정들에 의한 그리스 신화의 신들처럼 그들은 동물들을 자르고, 다음으로 정신적 나락의 공포감 속에서 의식을 수행한다.

- 전시기획자

프랑수아즈 독끼에르 (Françoise Docquiet): 팡데옹-소르본 파리 1 대학교 조형예술과 예술과학대 부학장이자 미술비평가이며, 전시기획을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프랑스에서 진행될 한국전시를 적극 지원하면서 대구에서 있을 프랑스 전시의 기획자이다.

마리안 데리안(Marianne Derrien): 독립큐레이터이자 비평가로 프랑스에서 활동 중이며, 이번 프로젝트의 공동 파트너로 프랑스 전시의 기획자이다.

강효연 : 프랑스 핸스 제 2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에 이어, 파리 1 대학교 '전시기획과 학문'과 프로페셔널과정에서 석사를 마치고, 서울시립미술관과 대구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미술전문서적 발간 및 학술세미나 개최 그리고 전시기획 등을 하고 있다.

■ 양국 행사의 개요

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팡데옹-소르본 파리1대학교와 한국의 '누스페어 동시대 미술연구소'가 공동 협력하여 2016년 2월, 프랑스 파리, 국제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에서 한국작가 4인을 통한 <Made in Korea>전을 소개하고, 2016년 11월, 한국에서는 프랑스 작가 4인을 통한 <세상 만들기 (Faire des Mondes)>전시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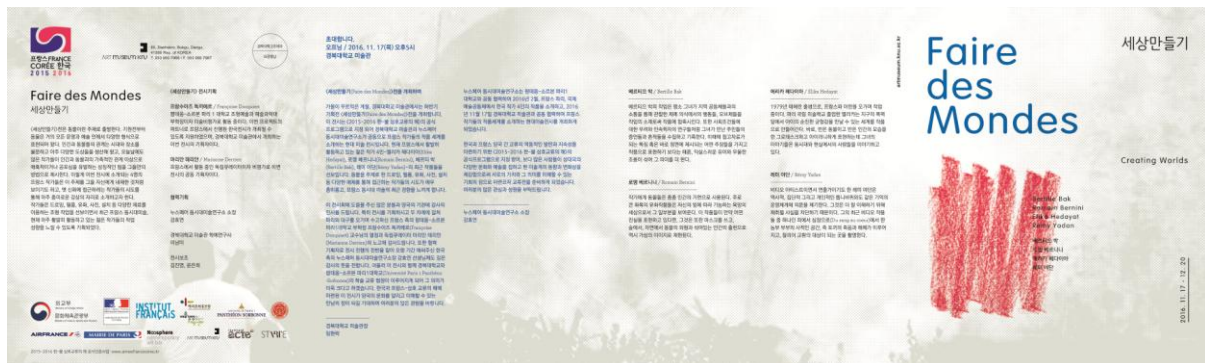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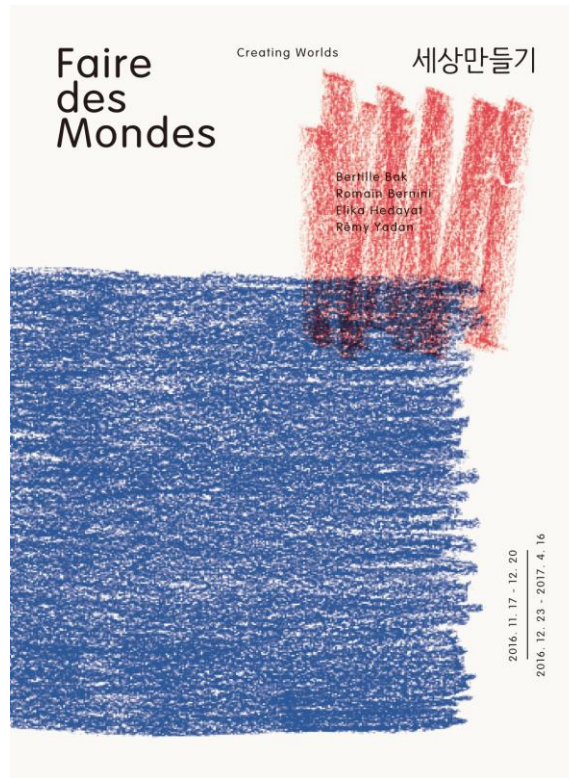
이 중, 프랑스에서 개최하는 <Made in Korea>전은 최근 20년간 한국에서 보여준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상징적이면서도 감각적으로 소개하는 전시가 되어줄 것이다. 이 전시에 소개되는 4명의 작가 중, 임현락, 박윤영, 이은실은 한국화를 전공한 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입체적인 한국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전통과 현대미술의 맥을 잇고 있는 작가들이다. 이어, 김영섭은 한국의 전통 소리인 풍물, 민요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상의 다양한 소리를 작품에 접목, 현대적인 감각으로 사운드 아트를 만들어내는 작가이다. 이들 4명은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고자 노력하는 작가들로, 지금 한국미술계의 현상 중, 중요한 하나를 접할 수 있는 뜻 깊은 전시로 소개되었다.

한편 2016년 11월 <세상 만들기 (Faire des Mondes)>전을 통해 한국에서 소개될 프랑스 작가들은 베르티 박과 로맹 베르니니, 엘리카 헤다이아, 레미 야단으로, 동물과 함께 한 미술의 의미를 관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사례와 더불어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이다. 또한 드로잉, 비디오, 사진, 설치, 유화 등 다양한 조형미술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두 전시를 통해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는 물론, 차세대미술을 책임질 젊은 예술학도들과 교육기관의 전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소통을 위해, 파리 1대학교와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만남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한국 측 파트너인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는 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작가의 예술작품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미술기관이다. 전시기획은 물론, 세미나 개최, 미술비평서 발간 등 실천적인 작업을 통해 현대미술의 가치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측 주관 기관인 팡데옹-소르본 파리1대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학교로써, 학교 간 교육과 학술 교류는 물론, 문화예술교류 측면에서도 연구자들과 졸업생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 도록표지 및 리플릿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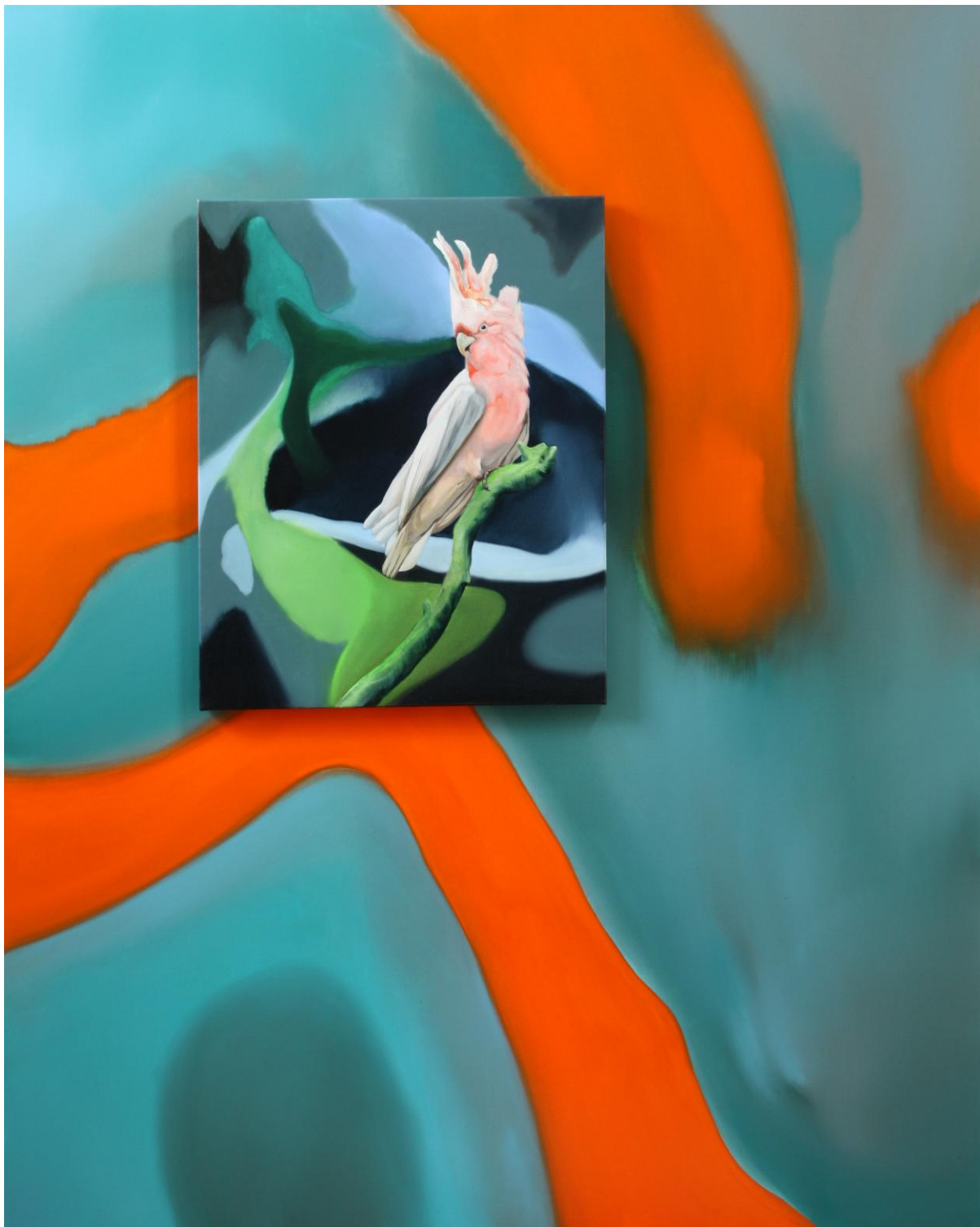
■ 출품작 이미지(별도 첨부)



베르티의 박 Bertille Bak, 도시 연대기 3 *Urban Chronicle 3*, 2011, video, 20', ©Bertille Bak;
courtesy: Galerie Xippas, Paris et The Gallery Apart, Rome



베르티의 박 Bertille Bak, 작은 마을 *Le hameau*, 2014, Vidéo/ 4:3 / HD, 22', ©Bertille Bak;
courtesy: Galerie Xippas, Paris et The Gallery Apart, Rome



로맹 베르니니 Romain Bernini, 바하나 IV / Vâhana IV, 2016, two pannels, oil on canvas, 200 x 160cm
courtesy galerie suzanne tarasieve



로맹 베르니니 Romain Bernini 무제/ **Untitled** 2015, oil on canvas, 220 x 180cm courtesy galerie
suzanne tarasieve



에리카 헤다이야 Erika Hedayat Sans titre dans la série "le Pour-trait" / 무제 '선을 위하여' 시리즈 2016,
technique mixte 30cm x 42cm courtesy Galerie Aline Vidal



에리카 헤다이야 Erika Hedayat Sans titre dans la série "le Pour-trait" / 무제 '선을 위하여' 시리즈 2016,
technique mixte 30cm x 42cm courtesy Galerie Aline Vidal



레미 야단 Rémy Yadan Les vrais hommes / 진짜 남자들 2014, video, 28' courtesy de l'artiste



레미 야단 Rémy Yadan Le Ravin bleu / 푸른 계곡 2008, video, 10' courtesy de l'artiste

■ 관련 홍보 사이트

<http://anneefrancecoree.com/kr>

<http://www.anneefrancecoree.com/>

<http://artmuseum.knu.ac.kr/>

<http://www.noosphereartlab.com/>